"인생관 형성 도움주는 포교"

교법사단 '바람직한 청소년교화' 세미나

경전상에 나타난 청소년의 모습은 어떠하며 부처님은 청소년 교화에 있어 어떤 방법을 제시했나. 또 오늘날 청소년 포교의 그 방법론은 무엇일까. 청소년 포교의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이러한 총체적 질문의 해답을 찾으려는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청소년 예비불자아닌 주체성 있는 신도
수행방법 개발·쾌적한 환경 제공해야

전국교법사단(단장 고우익)이 창설 54주년을 맞아 10일 오후3시 동국대에서 기념세미나를 갖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교법사들은 청소년 포교의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방법론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특히 '경전상에 나타난 청소년 교화의 방법론'을 주제로 발제한 이학주 교법사(명성여고)는 경전 속에 보이는 청소년의 모습을 △건강한 청소년상 △갈등 청소년상 △청소년을 선도하는 부모와 스승상 등으로 분류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 교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법사는 "불교적 관점에서의 청소년상, 즉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는 일이 우선 이뤄져야만 이후의 모든 포교불사가 올곧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포교 방법론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청소년 포교는 자칫 답보상태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법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증일아함경〉 〈잡보장경〉 〈대장엄경론〉 등에 나타난 청소년의 모습은 △어른보다 훌륭하기도 하며 어른을 구제하기도 하며 △구도심이 강하고 끈기도 있다. 하지만 △어른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는 청소년 △미약하고 어리석은 청소년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법사는 "경전속에 나타난 다양한 청소년상에 대한 부처님의 행적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선한 존재로서의 절대적 긍정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갖는 것"이라며 "오늘날 청소년 포교에 있어서도 그들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올바른 인생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렇다면 청소년 포교에 대한 관점의 전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에대해 이법사는 "청소년 불자는 미래의 예비 불자가 아니라 당당한 불자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이가 어린 것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욕망과 번뇌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방법만 적절하게 작용하면 어른보다 더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또 어른들이 사회적 체면과 세속적 이기심에 얽매여 실천할 수 없는 일도 청소년은 과감하게 도전하여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청소년은 모자라는 미완성의 인간이 아니라 가능성이 무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수행법 개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을 평등하게 보살펴 줄 것 △적절한 방편과 보상을 제시하여 정법으로 이끌 것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을 강조하지 말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청소년 포교는 그들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사들의 건강비결 ⑪

용 태 영 〈변호사〉

1973년 '부처님오신날 공휴권 제정 확인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 2년여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음력 4월8일을 부처님오신날 공휴일로 제정하는데 헌신했던 법조인 용태영 변호사(70).

용변호사는 지난 1월 고희를 맞았다.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나 유유자적 세월을 즐길만도 하지만 한해 1백여건의 송사를 준비하고, 하루 7~8시간을 자서전 집필에 시간을 보낼만큼 분주하게 지낸다. 그 분주함이 함께 생활하는 변호사 사무실 식구들에게는 치열하게 보이기도 한다.

36년동안 법조인으로서 '타고난 저울대 정신'을 살려 끊임없이 정의의 편에 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성취를 위해 도전하며 살아온 것이 그의 삶이다.

'하면된다' 강한 집념이 활력 원천
소식·규칙적인 생활로 건강다져

"끝없이 도전하는 집념없이 100년, 200년을 살면 뭐 하겠느냐"는 용태영 변호사의 달처럼 용변호사의 건강비결은 따로 있지 않았다. '하면 된다'는 강한 집념을 갖고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정신도 건강해지고 육체적 건강까지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귀띔한다.

용태영 변호사의 강한 성취욕은 과다한 술, 담배가 유해하다는 의학적 소견도 무색하게 할 정도다. "하루 담배 1갑 반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즐기지만 70년을 살아오는 동안 건강진단 한 번 받아본 일 없고, 약 한첩 지어먹어 본 일이 없다"는 것.

"건강을 과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 애 쓰기보다 스스로 기(氣)를 살려 '할 수 있다'는 성취욕을 키우고, 매일 소식(小食)으로 3끼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용태영 변호사는 또 "다소 무리하게 일을 하더라도 기상과 취침시간을 지키는 등 규칙적인 생활리듬을 잃지 않도록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대전광역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99 청소년 자원봉사박람회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주최한 '99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가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펼쳐졌다.

청소년교화연합회 대전·익산 지부는 지역 특성을 살린 자원봉사프로그램의 홍보활동을 펼치며 불교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제주 시민포교원 청소년교화 중심지로

청교련·대불련·룸비니등 연계활동
불서모으기 캠페인·문화운동 전개

'제주불교거사림 시민포교원'이 제주도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불교거사림회가 3월18일 제주시 삼도1동에 문을 연 시민포교원에 도내 불교 청소년 단체를 위한 법당과 사무실을 마련해 줌으로써 그동안 여러지역에 흩어져 활동하고 있던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제주지부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주지부, 제주교원불자회, 고등학생 불자모임 '룸비니' 등이 한 공간에 모인 것.

법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무실에 각각 둥지를 튼 이들 단체는 앞으로 상호연계를 통해 시민포교원을 도내 청소년 포교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가장 큰걱정거리였던 지도교사와 법사 부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됐다.

특히 '룸비니'는 대불련의 형들이 행사·법회뿐만 아니라 학업까지도 도움을 줄 계획이어서 천군만마(千軍萬馬)를 얻은 듯 든든해 졌다. 뿐만아니라 불자교사모임인 교원불자회의 지원과 가르침도 청소년 교화에 한몫을 할 전망이다. 또 제주청교련은 포교원 내에 불서(佛書) 및 교양도서를 비치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우리문화 자강운동 등을 월별 주요사업으로 진행해 도내 청소년 누구나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박지훈 대불련 제주지부장은 "법당 사용시간의 중복을 피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에게는 '열린공간'을 제공하고 청년불자들에게는 신심을 북돋을 수 있는 수행관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명예기자 접수 17일 마감

현대불교신문은 우리 생활과 밀착된 살아있는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신심을 북돋우기 위해 명예기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준 1기 명예기자에 이어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활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실 2기 명예기자를 찾습니다.

◇자 격: 주부, 직장 및 불교단체 종사자(지역 무관)
◇인 원: 00명
◇활동내용: 취재 및 제보
◇대 우: 채택된 기사 원고료 지급
◇접수마감: 4월 17일 오후 5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 수 처: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02)722-4162

파라미타 이사 7명 선출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6일 99년도 제1차 이사회의를 열고 신임 총재·회장 인준 및 이사 선출 등을 확정했다.

이사회는 신임 총재에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당연직), 회장에 조계사 부주지 지홍스님(당연직)을 인준하고, 일반이사에 △지광(능인선원 주지) △원혜(봉은사 주지) △성관(수원포교당 주지) △원택(조계종총무원 총무부장) △성타(불국사 주지) △도후(신흥사 주지) △지홍(낙산사 주지) △세영(신륵사 주지) 스님을 선출했다. 또 사무총장에 법경스님(조계종포교원 포교국장), 감사에 △지현(조계사 총무국장) △화암(조계종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스님을 선출했다.

이밖에 올 사업계획으로 오는 7월 '파라미타 청소년연합캠프'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평가를 통해 격년제 및 권역별 실시를 재론키로 했다.

청교련 예술경연대회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는 제12회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를 5월30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개최한다.

단 신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보급하고 건전한 여가 보내기 운동전개의 일환으로 매년 열리고 있는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는 그동안 청소년문화를 스스로 창조하고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번 대회의 경연분야는 △전통예술부문(국악연주·탈춤·고전무용·마당극·판소리 등) △현대예술부문(현대무용·시낭송·합창·댄스·관현악연주 등)이다. 접수는 5월8일까지. (02)735-5138

정토회 봄맞이 신앙대회

정토회(회주 법륜스님)는 '신심고취와 원력성취를 위한 제10차 새봄맞이 신앙대회'를 24~25일 백제불교 초전성지인 우면산 대성사에서 개최한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24일 도문스님(대각사 주지)의 입재법문과 함께 업장소멸을 위한 철야정진, 25일 서암스님(前 조계종종정) 특별법문과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수계법회 등으로 진행된다. 동참금 1만원.
(02)587-8992

문화부 '우리는 청소년' 배포

문화관광부는 각종 청소년 정보를 수록한 정보지 '우리는 청소년'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전국 청소년 관련단체 및 학교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이 정보지에는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대한 모든 것 △청소년 대상 인터넷 사이트 △청소년을 위한 PC통신 공간 △청소년의 여가활동 알림터 △청소년의 해외연수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지역연락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금지 법안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지사·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주말 참선방 안내

불자가 단기출가하여 대운스님과 함께 참선수행을 하며 입방중 승가 전통인 두끼의 발우 공양을 하게 됩니다.
많은 동참 간원합니다.

아 래
●일 시 : 매주토요일 오후7시입방
일요일 오전9시 방선 (회향)
※ 단기출가수행이므로 사찰기본의식(예불 공양 울력등)은 동참하여야 합니다.
●입방비 : 무료
●교 통 : 의정부시 북부역 토요일 오후5시 지장사 차량대기 출발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중간 덕계리 저수지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경법회 안내
삼세제불의 정체이며 만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경전을 우리 손으로 사경함으로 마음이 일심으로 모아지고 수행력과 공덕을 날로 증장된다고 하였습니다.
●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의정부시 북부역 오전 11시 차량대기)
● 회 비 : 무료임

전화 : 0351)863-1888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산 71
지장사 대 운 합장

지장만일기도·
6만지장보살님 조성불사안내

서울 불광동에서 30분거리, 아름다운 호수가 2개 있는 산자수려한 양주 백석 **도리산 육지장사**는 6만 지장보살님 성상을 모시는 조성불사와 매월 셋째주 토요일 밤 철야기도 정진 및 오는 10월 만일기도 (30년) 입제가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을 받고저 하시는 분은 필히 동참 바랍니다.

■ 만일기도입제일
1999년 10월 17일(음9월 9일) 오전 10시
■ 만일기도 1년 동참비 : 1만원(30년 30만원)
■ 지장보살님 한분 모시는 동참금
10만원(1자 5치)
접수처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17-12 삼보사 ☎ 352-6406
기도처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산128-1 도리산 육지장사 ☎ (0531)871-0101
■ 은행계좌번호
국민은행 833-01-0097-579
농 협 045-01-202971
우 체 국 012468-0136873-11
하나은행 110-082213-00104
주택은행 415637-01-002302
▶ 예금주 : 지장기도만일회

삼보사 육지장사 주지 지원 합장

· 화제의 신간 ·

불교성서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
THE LIFE AND HIS TEACHING OF BUDDHA GOTAMA SAKYA

中人 洪淳徹

▪제 1 편 : 부처의 생애
▪제 2 편 : 부처의 가르침

불교의 창시자이신 석가모니 부처 (sakyamuni Buddh)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며, 불교교단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되었는가를 그의 생애의 기록을 통하여 생생히 이해할 수 있다.

·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은 곧 진리의 말씀.
· 불교란 「삶의 바른길」의 실천을 통해 불교의 이상인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

♣ 관음역서 ♣
◆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엉장 신국판 정가 40,000
◆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 정가 25,000
◆ 사주학 핵심비결 엉장 신국판 정가 25,000
◆ 고전 풍수학 설심부 엉장 신국판 정가 25,000
◆ 혜서 명리진평 엉장 신국판 정가 30,000
◆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 정가 15,000
◆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정가 15,000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A5 신/ 양장본 /40,00원

관음출판사 ☎ 921-8434, 929-3740 FAX 929-3470